

<초공본풀이>의 비속함과 성스러움*

신연우**

<차례>

1. 머리말
2. <초공본풀이> 서사의 네 단계
3. 성스러운 세계의 의미
4. 신화적 질서의 현실적 구현
5. 맺음말

<국문요약>

우리 삶이 실재하며 의미가 있다는 체험을 하는 것을 엘리아데는 거룩함, 성스러움의 체험이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초공본풀이>도 심방과 청중이 거룩함, 성스러움의 체험을 하게 하여 자신과 세계를 성화하는 의례 체계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상 <초공본풀이>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쉽게 들지 않는다. 노가 단풍 자지맹왕 아기씨의 삶은 지리멸렬할 뿐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그는 신으로 좌정한다. <초공본풀이>의 어디서 심방이나 청중은 성스러움을 체험할까? 아기씨는 어떻게 해서 신이 되었는가? 거룩함은 삼맹두의 것이고 아기씨 뒸은 여성의 삶에 대한 공감 정도로 그치는 것인가? 아기씨의 삶 자체로 거룩함을 확보할 수는 없는가?

* 이 논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초공본풀이>는 네 단계로 서사적 맥락을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轉落의 서사'이다. 부잣집 외동딸이 소종래를 알 수 없는 남자를 만나서 임신하고 집을 나와서 낯선 곳에서 혼자 아이 셋을 낳고 기르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보면 이야말로 비속한 저잣거리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앞의 전락을 상쇄하는 '上昇의 서사'이다. 비천한 존재에서 고귀한 존재로의 상승은 승고하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현실적인 소망으로 읽히거나 민담적 비약으로 수용될 뿐 거룩함의 차원으로까지 상승하지는 못한다. 다음 단계는 다시 '전락의 서사'이다. 과거에 합격한 삼형제가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 고향의 어머니가 죽고 만다. 삼천선비의 모략에 의한 불행이다. 합격의 취소와 어머니의 죽음, 이 둘은 간절했던 소망을 무화시킨다. 네 번째 단계의 서사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제 삼형제는 과거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살리러 길을 떠난다. 세속적인 성공을 포기하고 초월적인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이는 일상 삶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 세계로의 방향 전환이다.

이 네 번째 단락에서 바로 성스러운 세계로 진입한다. 그 전까지는 俗의 세계를 그렸다. 속의 세계는 불행과 고통으로 점철된다. 그것은 이유를 모르거나 또는 이유를 알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 곳의 현장을 사는 이들은 삶을 '부질없는 고통'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죽어서야 끝난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죽음은 이 삶의 부질없음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하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의 여정, 전락-상승-전락을 모두 겪고 심지어 죽음까지 겪기에 아기씨는 신이 될 수 있다. 삶의 고난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깊이 알고 있기에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전락-상승-전락의 삶의 과정을 겪는 보통 사람들은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에서 삶의 전범을 본다. 아울러 그런 부질없는 고통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의 세계를 꿈꿀 수 있게 해준다.

이들의 삶에 <초공본풀이>는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노가단풍 아기씨가 겪었던 삶의 고난은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자신들의 것이기도 하다. 없는 살

림에 힘겹게 아이를 길러내는 모습은 모든 어머니들이 같이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공본풀이>의 전반부가 왜 그렇게 비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제주 여성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기씨와 삼뽕두가 신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여성들의 가슴에는 아기씨나 삼뽕두가 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겨져 있다. 이들과 처럼 초라하고 비속한 삶을 살았던 아기씨가 신이 된 것이다. 고단한 삶을 벗어나 다른 존재,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 더 높은 무엇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빛처럼 가슴에 남는다.

이런 빛을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그 일상은 더 이상 비속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게 된다. 방향 없는 삶이 아니게 된다. 무언가 나은 것, 더 높은 것을 향하는 삶이 된다. 일상의 비속함을 참고 견딜 뿐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면서 더 크고 넓은 자아가 된다. 스스로 성스러워진다.

주제어: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 성스러움, 비속함, 일상, 초월

1. 머리말

<초공본풀이>는 제주도의 대표적 무가이다. 제주도 무속이 제주도민들의 종교로 제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할 때, <초공본풀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경전의 구실을 톡톡히 해왔다고 인정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의 굿법이 바로 제주도 무속의 굿법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 경전으로서 <초공본풀이>는 일종의 성스러운 대상으로 여겨진다. 기독교의 구약성서가 하느님의 행적을 적은 책인 것처럼, <초공본풀이>는 무조의 행적을 노래한다. 가령 예배 때마다 성서의 내용을 말하거나 성서를 읽는 것 자체가 하느님에 대한 찬양이 되듯, 제주도 곳에서는 <초공본풀이> 서사를 되풀이함으로써 무조의 행적을 찬양하는 것이다. 종교적 내용물은 다르다 해도 종교적 기능의 양상은 유사하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이중춘 심방은 <초공본풀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초공본을 전부 알게 되면 제주도 무속의 어떻다, 제주 무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다 하는 것, 제주도의 무속의 근본을 전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공은 신불휘라 하고, 이공은 꽃불휘라 하고, 삼공은 전상풀이다 이렇게 해서, 초공, 이공, 삼공이라 한다. 초공본이라 하면 제주도 무속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¹⁾

<초공본풀이>가 왜 중요한가? <초공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의 근본이 되며 신의 뿌리를 알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근본이며 뿌리가 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그 근본과 뿌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근본과 뿌리이기 때문이다. 근본과 뿌리는 왜 찾는가? 우리의 비천한 일상의 나가 전부가 아닐 것이기에, 일상 너머의 나의 본래의 근원적 모습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이중춘 심방은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심방이 아닌 일반 청중들에게 <초공본풀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또 제주도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과연 문학작품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기존 연구는 작품 구조와 기능,²⁾ 여성학적 견지,³⁾ 인류학이나 민속학적 접근,⁴⁾ 국 의례와의 관계⁵⁾ 비교연구⁶⁾ 등에

- 1)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13면.
- 2)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 11집, 배달학회, 1986. 185~214면.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5~213면.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 고찰」, 『국어국문학』 110집, 국어국문학회, 1988. 359~370면.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짜임새와 미적 성취」, 『구비문학연구』 3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343~368면.
- 3) 이수자, 「한국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16집, 이화어문학회, 1998. 5~30면.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66~76면.

서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수용론적 관점에서의 주제론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 제주도의 본풀이는 장주근 선생이 오래전에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신화의 문학적 감상의 시간”이었으며, “이 청중 부녀자들의 심금은 장고의 리듬을 타고 이 땀의 문학의 삼매경을 헤매게 되며, 혹은 손뼉치고, 혹은 한숨을 쉬며, 혹은 끼득끼득 웃기도 하며 흐뭇해한다.”⁷⁾ 본고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문학적 요인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토속의 제주도민에게 오랜 기간 전승되었을 <초공본풀이>는 심방 자신들에게 성스러운 대상이었던 것처럼 곳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그렇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무조신의 행적을 되풀이하여 찬미하는 것인 동시에 심방이나 청중들 개개인에게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존재의 의의를 되살려보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삶이 실재하며 의미가 있다는 체험을 하는 것을 엘리아데는 거룩함, 성스러운 체험이라고 말한다. 그는 “(1) 신들을 모방함으로써 인간은 거룩한 것 속에, 따라서 실재 속에 머무르게 된다. (2) 모범적인 신의 태도를 계속적으로 재연함으로써 세계가 성화된다. 인간들의 종교적인

윤교임, 『여성 영웅신화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9~45면.

4)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연구」, 『한국무속학』 제 19집, 한국무속학회, 2009. 7~33면.

신연우, 「<초공본풀이> 노가단풍아기씨의 죽음과 재생의 농경신화적 이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255~283면.

5)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와 신곡」, 『비교문화연구』 5집,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87~108면.

문봉순, 「심방의 입무 의례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현선,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신화아카데미 편,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251~331면.

6)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403~448면.

7) 장주근, 「제주도 신방의 본풀이」,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고 190. 을유문화사, 1986년 5판, 142~144면.

행위는 세계의 신성성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다.”⁸⁾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초공본풀이>도 심방과 청중이 거룩함, 성스러움의 체험을 하게 하여 자신과 세계를 성화하는 의례 체계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상 <초공본풀이>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쉽게 들지 않는다. 노가단풍 자지멧왕 아기씨⁹⁾의 삶은 지리멸렬할 뿐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그는 신으로 좌정한다. <초공본풀이>의 어디서 심방이나 청중은 성스러움을 체험할까? 아기씨는 어떻게 해서 신이 되었는가? 거룩함은 삼멧두의 것이고 아기씨 뉘은 여성의 삶에 대한 공감 정도로 그치는 것인가? 아기씨의 삶 자체로 거룩함을 확보할 수는 없는가? 따져 볼 것이 많은 이 문제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본고는 이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초공본풀이> 자료로는 아래 7개 구연자료를 이용한다.

박봉춘 구연본, (赤松智城 외,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 上』, 동문선, 1991. 242~258면)

고대중 구연본,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92~113면)

안사인 구연본,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126~150면)

김명윤 구연본,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진』, 민속원, 1991. 53~63면)

김병효 구연본,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진』, 민속원, 1991. 63~70면)

이중춘 구연본,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13~149면)

8) 멀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사, 1983. 77면.

9) 본래의 이름은 “이 산 앞은 밭이 받고 저 산 앞은 줄이 밭나, 왕대월산 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멧왕 아기씨”이다. 앞으로는 편의상 ‘노가단풍 아기씨’ 또는 그냥 ‘아기씨’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양창보 구연, (허남춘,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10)

하순애의 지적대로 “본풀이를 제대로 구송하거나 제의절차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¹⁰⁾는 제주 무속 사회에서, 위 자료의 심방들은 곳의 맥락과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본풀이를 구송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특히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 13호 제주 큰굿 기능보유자였던 이 중춘 심방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제 71호 제주칠머리당굿 전승보유자였던 안사인 심방의 자료를 주로 이용할 것이다.

2. <초공본풀이> 서사의 네 단계

<초공본풀이> 이야기를 노가단풍 아기씨의 인생 역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후반부의 유정승택 따님애기 부분은 제외된다. 의례의 측면에서 보면 필수적인 부분이지만,¹¹⁾ 문학적 구성으로 보면 최시한이 지적한대로 그 앞의 단락의 모방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본풀이로 덧붙거나 변모된 것으로 보이기¹²⁾ 때문이다. 박봉춘 본, 김병효 본, 고대중 본 등 제주도 예서도 유정승택따님 이야기 부분은 구연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도 참조될 수 있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을 상승과 하강이라는 구도로 읽어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크게 네 단계로 서사적 맥락을 구분해볼 수 있다. 태어나서 모르는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어렵지만 삼형제를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잘 키우는 어머니의 이야기, 과거 급제로 인해 삼천선비의 미움을 받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 돌아온 아들들이 고향을 하여 어머니를 살려 신으로

10) 하순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230면.

11) 문봉순, 앞의 논문, 10면.

12) 장주근, 앞의 책, 167면; 최시한, 앞의 논문, 211면.

좌정시키는 이야기로 보면 하강과 상승과 다시 하강, 그리고 다시 상승의 문학적 구도를 그려볼 수 있다.

이야기는 먼저 자식이 없어 애타하는 임진국대감 부부가 불전에 기도 끝에 딸자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지 높은 집이여, 들모쉬 유기전답 부채팔명 사옵테다.”하는 것처럼 여유 있는 집의 외동딸로 태어나 귀하디귀하게 자란다. 이름이 “이 산 앞은 밭이 번고 저 산 앞은 줄이 번나, 왕대월산 금하늘 노가단풍 즈지맹왕 아기씨”라고 긴 것은 아기씨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 이해할 수 있다.

아기씨가 열다섯 살이 되자 부모가 집을 떠날 일이 생긴다. 아기씨는 규중에 깊이 가두어진다. 이는 처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성숙한 자녀이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할 나이가 되었음을 부모가 집을 떠나 아기씨 혼자 남겨지게 된다는 설정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숙한 아기씨에게 생길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아기씨 홀로 남은 빈 집에 중이 방문하고 아기씨는 임신한다. 아기씨는 무책임한 일을 한 결과에 대해 부모로부터 문책을 당하고 집을 떠난다. 결국 독립해야 하는 것이다. 중을 찾아갔으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혼자서 아들 삼형제를 낳고 가난 속에서 이들을 양육한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는 ‘轉落의 서사’라고나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부잣집 외동딸이 소중래를 알 수 없는 남자를 만나서 임신하고 집을 나와서 낯선 곳에서 혼자 아이 셋을 낳고 기르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보면 이야말로 비속한 저잣거리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성스러움과는 아무 관련을 지을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냉정한 거리감을 지우고 다시 바라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남의 일이 아니기도 하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특수한 사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청자는 실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다. 아기씨의 모습을 다시 보자.

아기씨는 임신을 하고도 왜 임신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이 임신 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이상스러운 병이 들었다고만 생각한다. 여기에 대처해야 할 방법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쫓겨 나서 혼자가 된다.

여기에서 바로 아기씨로부터 청중에게로 공감의 확산이 일어난다. 아기씨는 임신해서 쫓겨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당하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험을 한다. 나는 왜 가난하고 불행한가? 그 이유는 선명하지 않다.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불행을 당한다.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해녀의 심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나 어멍/ 날 날 적에/ 해도 달도/ 없는 날에/ 날 났던가/이여도싸나//
저 바다에/ 고통행복이/ 많더라도/ 내 숨 바빠/ 못 허더라/
무슨 날에/ 나를 나서/ 요 물질 허멍/ 시삼시 굶으멍/ 요 물질허영//
칠성판을/ 등에 지고/ 한강 바당/ 건너나 갈 적/
이성인가/ 저성인가/ 이여도 사나”¹³⁾

왜 나는 이런 삶을 사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알 수 없다. 세상이 그냥 그럴 뿐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폭력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움츠러든다. 아지 못하는 채로 임신한 노가단풍 아기씨와 칠성판을 등에 진 해녀가 당하는 삶의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알 수 없는 폭력 아래 삶을 영위해나가야 한다는 점은 같다. 아기씨의 불행은 아기씨의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를 듣는 제주 여성들의 삶을 같은 처지에서 되돌아보게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앞의 전략을 상쇄하는 ‘上昇의 서사’이다. 홀어미인 노

13) 제주시 향토민요 자료집, 『제주의 향토민요』, 제주시, 2000. 115면.

가단풍 아기씨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삼뎡두 삼형제를 기른다. “이 아기를 삼형제 키움서 일천고생”을 한다. 이 아이들의 고생에 대하여는 안사인 구연본이 좀더 자세하다.

놈의 즈식덜은 서울이 근당호민 조은 입성 입어아정 우레꺄찌 놀건마는
삼성제는 덧덧 주운 두데바지 저구리에
먼 울레를 나가민 놈의 집윗 아기덜은 삼성제신디,
“에비 웃인 호로새끼,” 구박을 주어가난 비새꺄찌 울어가명¹⁴⁾

새해를 맞는 설이 되어 오히려 가난하고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는 모습이다. 천덕꾸러기 삼형제는 서당에 가서는 돈이 없어 삼천선비 심부름을 해가면서 재 위에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여 별명이 ‘젓부기 삼형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훗날 이들이 삼천선비를 물리치고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다. 이는 ‘상승의 서사’라고 할만하다. 父親 不在와 젓부기라는 비천한 처지와 과거 합격이라는 놀라운 상승의 격차가 클수록 놀라움은 커진다.

이는 모든 가난한 엄마들의 소망이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 키운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모든 고생을 상쇄하여 준다. 그 희망만으로 현실의 고달픔을 견뎌내기도 한다.

비천한 존재에서 고귀한 존재로의 상승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누추한 존재나 고귀한 존재 모두 사람들이 접촉하면 위험한 터부가 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¹⁵⁾ 그래서 이 부분은 신화적 느낌을 준다고 할 수

14)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141면.

15) “이와 같이 원시사회에서 신성한 왕과 추장, 사제들이 지키는 의식적 정결의 규칙은 여러 면에서 살인자, 산모, 사춘기 소녀, 사냥꾼과 어부 등이 지키는 규칙과 일치한다. ……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의 다른 부분과 격리해, 무서운 영적 위험이 그들에게 미치거나 그들로부터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하는 터부의 목적이다.”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용대 옮김,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2003. 248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현실적인 소망으로 읽히거나 민담적 비약으로 수용될 뿐 거룩함의 차원으로까지 상승하지는 못한다.

가난한 집 아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일 같은 것은 드물기는 해도 현실에서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이것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느낌의 성스러움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모성의 간절한 소망으로서의 진지함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거룩함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 단계는 뜻밖에도 다시 ‘전략의 서사’이다. 과거에 합격한 삼형제가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 고향의 어머니가 죽고 만다. 삼천선비의 모략에 의한 불행이다. 어머니가 죽고 없는 마당에 과거는 의미가 없어서 따라온 사람들을 돌려보낸다. 합격의 취소와 어머니의 죽음, 이 둘은 간절했던 소망을 무화시킨다.

앞의 전략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이었다면 이번의 전략은 적대적인 인물 또는 세력의 흥계로 인한 것이다. 불행은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있는 것이지만 불행은 마찬가지로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여기까지의 서사는 어쨌거나 현실 삶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불행을 겪다가 좋은 일을 맞아서 기쁘기도 하다가 또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 인생이다. 노가 단풍 아기씨의 특수한 체험으로 전개되었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를 우리는 소설에서 사용하는 蓋然性(possibility)이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다. 架空 虛構인 이야기이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되는 사건들로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 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 중간중간의 초월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현실 맥락 안에서 이해된다. 주접선성¹⁶⁾이 천안낙화금정옥술발을 삼식번을 치니 마흔 여덟 모란장 서른 여덟 빗골장 등이 모두 열리는 것도 도술로서 초월적인 가치보다는 현실 맥락 안에서의 흥미로운 과장된 삽화 정도로 수용되

16) 각편에 따라 ‘주자선생’ 등으로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이중춘 심방 구연본에 따라 ‘주접선성’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는 것이다. 전체 큰 줄거리가 현실 안에서의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음으로 그렇다.

이 개연성은 주제 의식으로 읽어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구성을 전략-상승-전략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보면 삶에 대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삶은 본래 불행한 것이며 간혹 좋은 일도 생기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人生은 苦海’라는 말에는 이런 세계관적 전제가 들어 있다.

이 다음에서 끝까지가 네 번째 단계이다. 이런 점에서 네 번째 단계의 서사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제 삼형제는 과거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살리러 길을 떠난다. 세속적인 성공을 포기하고 초월적인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죽은 어머니를 살리러 길을 떠난다는 것은 가난한 아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차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이는 일상 삶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 세계로의 방향 전환이다.

아이들은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이어서 황금산으로 올라가 아버지인 주접선성을 만난다. 주접선성은 아이들에게 팔자를 그려서 심방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일러주는 대로 머리 삭발하고 장삼 고깔을 입고 무악기를 만들어 초감제 초신맛이 굿을 하여 어머니를 살려낸다. 어머니 손목을 쥐고 서강베포땅으로 내려와 상간주 중간주 하간주를 설 연하여 신전집 즉 일종의 굿당을 만들고 어머니를 이승 삼하늘을 관장하는 신으로 좌정하게 한다. 이 신전집은 나중에 유정승택 따님애기가 최초의 심방이 되어 굿할 자격을 얻고 굿법을 얻어 오는 신성한 공간이다.

3. 성스러운 세계의 의미

이 네 번째 단락에서 바로 성스러운 세계로 진입한다고 할 수 있다.¹⁷⁾ 그 전까지는 俗의 세계를 그렸다. 속의 세계는 불행과 고통으로 점철된

다. 그것은 이유를 모르거나 또는 이유를 알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 곳의 현장을 사는 이들은 삶을 ‘부질없는 고통’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죽어서야 끝난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죽음은 이 삶의 부질없음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하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의 여정, 전략-상승-전략을 모두 겪고 심지어 죽음까지 겪기에 아기씨는 신이 될 수 있다. 삶의 고난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깊이 알고 있기에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전략-상승-전략의 삶의 과정을 겪는 보통 사람들은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에서 삶의 전범을 본다. 아울러 그런 부질없는 고통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의 세계를 꿈꿀 수 있게 해준다.

삼행두도 이 죽음을 계기로 현실의 삶에서 벗어난다. 현실의 삶에서의 성공은 좋아보이기는 하지만 초월적이고 영적인 삶을 얻는 것만은 못하다는 것을 이중춘 구연본은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다.

설운 아들이, 과거한 큰아덜아 뗏이 지일 조아니
초감젯상 도입상이 조옴데다
초감젯상 받아보라, 그것보다 더욱 좋다.
셋아덜아, 과거한 무엇이 제일 좋아니.
어수에 비수에 상도래기 놀매웃이 줍데다.
초신맛이 해어보라, 그것보다 더욱 좋다.
죽은 아덜아 과거한 무엇이 제일 좋아니.

17) <초공본풀이> 뿐 아니라 <이공본풀이>나 <철성본풀이> 등도 속의 전반부의 이야기에 이어 신으로 좌정하는 성의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조동일의 지적이 도움이 된다. 일반본풀이는 시대 변화에 호응하면서 중세 서사시 또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서사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신본풀이는 순수한 신앙서사시보다는 생활 서사시화하는 측면이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05면.
또한 이들 중 <초공본풀이>는 제의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풀이로서 성스러움으로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삼만관속 육방하인 피리단자 옥저 해금 주태 소리가 구경할만 합데다.
 수양맛이 해여그네 노단 손에 신소미 웬손에 금제비칭 거느리어
 옥황더레 췌복소릴 울리민, 어머님 신가심을 울릴 듯 흥단 흥난.

세속 현실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초감제, 초신맛이, 시왕맛이는 바로 죽은 어머니를 살리는 초월적인 행위이다. 이 부분을 단적으로 말하면 세속의 세계를 버리고 신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삶의 고통을 없애는 길이라는 말이다. 俗을 버림으로써 聖을 얻자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초공본풀이>는 종교 경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다.

성의 세계는 현실의 고통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죽음도 치유되는 곳이다. 이 깨달음은 청중을 성의 세계로 인도한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을 노래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지속되는 현재의 고통을 종교적 차원으로 덮을 수 있게 된다.

비속하기만 했던 지상에서의 아기씨의 삶이 초월적인 삶으로 전변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다. 현실의 일상적이고 비속한 삶을 벗어나서 저 높은 차원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의 고통을 감소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것이 곳에 참여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곳에서 사람들은 노가단풍 아기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와 접촉하는 것이다. 극도의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성스러워진 존재와 접촉함으로써 자신도 성스러워지는 체험을 공유하게 된다. 터부의 부정이 전이되듯이 성스러움도 전이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보면 속의 부정적인 면모를 버리고 성스러움의 초월적 세계로의 지향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곳의 목적이 俗된 日常의 생활을 버리고 종교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살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일상의 삶은 버릴 수 없다. 일상에서 사는 것은 속의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떠나지 않는 한 일상적이고 비속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굿이란 거꾸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초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굿을 통해 성스러움을 체험했다고 해서 성스러움의 세계로 아주 가버리면 안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속에서 성을 찾는 행위를 잊지 않는 것이다. 속은 존재의 바탕이다. 그러나 속에 갇혀 있으면 삶은 고통일 뿐이고 존재는 무의미하다. 속에서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을 찾는 행위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반복적으로 성을 찾음으로써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굿당은 바로 삶의 중심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이 된다. 일상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가도 굿을 통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노가단풍 아가씨가 보여주었듯이 삶은 고통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과정은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룰 수 있는 단계인 신적인 존재의 차원이 삶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삶의 궁극적 지향점을 알고 있을 때 속에 매몰되었다가도 다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일상의 무의미를 견디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보면 일상 자체도 성스러운 차원에 이르게 되는 것 같다. 노가단풍 아가씨의 고통스런 삶과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삶의 고통은 성의 전제이다. 속이 전제가 되어서 전환되는 과정을 겪어야 성스러울 수 있다. 전환의 계기가 없다면 성도 없다. 그러므로 성과 속은 하나로 묶여 있다. 그것은 하나의 바위가 성스러운 것으로 섬겨질 때 그것은 바위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성스러움을 부여한 이후에 가능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¹⁸⁾ 바위 자체는 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성스러움의 의미 부여가 있는 후에는 거룩한 것으로 섬겨진다. 삶의 고난도 결국 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고난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18) 멀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 『聖과 俗』, 학민사, 1983. 90면.

우리는 먼 길을 돌아왔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을 통해서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고통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차원의 성스러움으로의 비약을 꿈꾸었으나, 그 비약은 일상의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서 비속한 일상을 그 자체로 끌어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초공본풀이>는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를 제주 아주망들이 알고 있었을까? 그렇다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의식화해서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러한 체험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글은 그들이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을 분석적으로 드러내 줌 더 상세히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신화적 질서의 현실적 구현

<초공본풀이>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앞에 보이는 세 단계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로 이해되면서 동시에 신화적 속성을 몇가지 드러내 보이고 있다.

15세가 된 노가단풍 아기씨가 집 안에 갇히고 부모가 집을 떠난다. 이는 프롭이 지적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마법담의 첫부분에 공통되는 ‘결핍’ 상황과 공통된다. 프롭이 제시한 민담의 31개 기능의 첫 번째가 바로 양친이 일을 하러 가거나 죽음으로 사라지는 화소를 포함하는, 이른바 ‘不在’이다.¹⁹⁾

이렇게 혼자 있게 되는 아가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신을 하는 것도 민담 뿐 아니라 신화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처녀인 몸으로 신탁을 피하기 위해 감옥에 갇혔으나 황금비로 변해 다가온 제우스에 의해 임신하는 다니에나, 탑에 갇혔던 처녀인 라폰젤이 왕자를 만나 아기를 갖게 된

19) 블라드미르 프로프,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새문사, 2009. 40면.

다는 서구의 이야기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삼행두가 놀라운 성취를 보이는 부분도 그 자체로는 민담적이기도 하지만 신화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삼행두는 가난 속에서도 탁월하게 학문을 익히고 배우지도 않은 활쏘기에 능하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황금산 주접선성이기 때문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버지가 신적인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도 그 능력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성스러움의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작품 내에서 신화적 성스러움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스러운 것은 작품 안에만 적용되어서는 얻어지지 않는 것이다. 신화가 성스러운 것은 작품 밖의 현실에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가령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서에 기록된 하느님의 행적이 지금 현실에 영향력을 그대로 갖는다고 알고 있는 것과 같다. 하느님이 그렇게 했기에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고구려인은 “스스로 신화적 질서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 광개토왕의 치적을 말하기 전에 주몽신화부터 서술”하였다.²⁰⁾ 즉 “신화적 질서는 작품내적인 것만이 아니고, 작품외적인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신화적 질서가 작품 밖의 현실세계까지 지배해야 신화적 성스러움을 가진다.

서사시인 <초공본풀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품 밖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하나는 ‘초공맞이’라는 祭次이다. <초공본풀이>와 초공맞이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는 이미 김현선이 잘 정리했다. 김현선은 “<초공본풀이>는 신으로서의 권능을 강조하고 집단의 신으로 숭앙되는 영웅서사시 이면서 영웅의 숭고미와 비장미를 강조한다. <초공맞이>는 그러한 영웅과 동질성을 추구하는 신인합일의 이상을 견지하면서 인간과 신이 하나로 합일된 경지를 구현”²¹⁾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전제 위에 여기서

20)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11면.

21) 김현선, 「제주도 큰굿의 본풀이와 맞이의 상관성 연구」, 제주도 큰심방 이종춘 추모 학술제와 삼시왕연맞이, 『학술대회 자료집』, 2012. 6. 1. 제주돌문화공원 내 오백장군갤러리, 48면.

는 그 기본적인 사실만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초공맞이는 <초공본풀이>에서 노가단풍 아기씨나 삼맹두가 행한 행적을 심방이 따로 곳으로 마련해서 연기하는 곳거리이다.

가령 본풀이에서 주접선성이 아기씨 집으로 와서 시주를 청하면서 간혀 있는 아기씨의 방을 열 때 “하늘 옥항 도성문 열려오던 천양낙화금정 옥술발을 둘러받아 한 번을 둘러치난 천하가 요동하고 두 번을 둘러치난 지하가 요동하고 삼세번을 둘러치난 상거심 주석통쇄가 절로생강 열아진다.”²²⁾고 하면, 초공맞이에서 심방은 주접선성이 그랬던 것처럼 요령을 세 번 흔드는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다. 이어서 아기씨가 “하느님을 불까 청너울을 둘러쓰고 지애님이 불까 흑너울을 둘러쓰고 아니 보아난 대서 얼굴이사 무사 뵈우리아 백너울을 둘러쓰고 소곡소곡” 나아오는 대목에 대하여는 심방이 너울 쓴 모습을 모방하기 위하여 신칼치마를 머리에 쓰고 춤을 춘다. 이와 같은 식으로 <초공본풀이> 장면장면마다를 모방행위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는 <초공본풀이> 자체를 구연하는 것과는 별도의 제차이다. 즉 <초공본풀이>라는 작품 바깥으로 나온 것이다. 작품 바깥에서도 작품 내의 상황들이 재연되는 것은 그 작품이 작품 밖의 현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현실감은 초공맞이 처음에 초공질침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초공신이 오는 길을 닦는 행동들, 신의 길을 언월도, 작대기, 따비 등으로 치우고 발로 고르고 다리를 놓고 구멍을 메우는 등의 심방의 행동은 신이 곳 현장으로 온다는 설정에 현실감을 더한다. 이 위에 <초공본풀이>에서 말하는 여러 행위들이 반복 재현됨으로 해서 곳 전체로 <초공본풀이>가 확장된다.

두 번째는 <초공본풀이>가 제주도 여러 곳의 곳법을 이룬다는 점이다. 가령 삼맹두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먼저 외할아버지 임정국 대감을 찾아갔을 때, “배석자리 끝안 절 삼재를 흐난”²³⁾ 했기 때문에 심방이 곳

22) 이종춘, <초공본풀이>,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23면.

을 하러 가면 제일 먼저 신자리를 내어주는 법이라고 한다. 너사메 삼형제를 만나 의형제를 맺었기에 ‘연양 육고비’를 매는데, 이는 당주상에 종이로 오려 만든 것으로 6형제를 뜻하는 것으로 여섯 구비로 접혀 있다. 신칼 손잡이 부분에 구불구불한 선은 삼맹두가 배나무 배좌수 집에서 나올 때 길을 일러주던 청만주에미인 뱀을 그려넣은 것이라고 한다. 신칼의 칼날에서 손잡이 사이는 계단 모양인데 이는 아가씨의 험난한 여정을 조심다리라고 표현하는 등, 제주도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무구인 신칼 전체가 <초공본풀이>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²⁴⁾ 이런 식으로 <초공본풀이>에 보이는 다양한 화소들은 곳에서 현실이 된다. 신화의 주요 인물인 삼맹두 자체가 곳의 기본 도구인 신칼, 요령, 산판을 가리킨다.

전통시대에 제주도민에게 곳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 삶을 규정하는 힘을 갖는다. <초공본풀이>가 이야기만으로 그치지 않고 초공맞이나 기타 곳에서의 곳법으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은 <초공본풀이>의 과정이 점의 모형을 이룬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앞날의 길흉을 알려주기에 점은 참여자의 크나큰 관심사이다. 이 점의 기본은 두 개의 신칼을 던져서 생기는 모양인데 이는 바로 노가단풍 아가씨가 집을 나서서의 여정에서 겪은 일 중 하나이다. 아가씨는 칼선다리, 애선다리, 등진다리, 오른다리를 지난다.²⁵⁾ 이는 신칼의 칼날이 마주 보거나 칼등이 마주 보거나 칼날이 왼쪽 또는 오른쪽을 향하는 등의 점패와 관련 있다.

이런 방식으로 <초공본풀이>는 자체에서 마련한 신화적 질서를 현실로 투사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초공본풀이>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 안의 아가씨와 삼맹두의 행적이 이야기 밖의 현실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점에서 <초공본풀이>는 성스러움을 확보한다.

23) 같은 책, 140면.

24) 김현선, 「제주도 ‘삼맹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생활문화연구』 제6호, 국립민속박물관, 2002. 115면.

25) 현용준, 위의 책, 138면.

유정승택 따님애기가 심방이 되기 위해 어인타인을 맞고 무당서와 약밥약술을 얻는 이야기도 심방의 곳에서 실제로 재현되어 현실화된다. 제주도민이 종교적으로 의지하는 심방들은 바로 <초공본풀이>의 신격들로부터 ‘신의 아이’의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화가 갖는 현실성은 현실 내의 증거물로도 나타난다. 전설의 증거물이 산이나 언덕 등 구체적인 지명인 것과 달리 신화의 증거물은 보다 광범위하다. 주몽신화의 증거물이 고구려이고, 단군신화의 증거물이 고조선인 것처럼, <초공본풀이>의 증거는 제주도의 무속신앙이다. 제주도민이 심방을 믿고 이승 삼하늘과 저승 삼시왕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는 한 <초공본풀이>는 제주도민의 마음에 살아 있다. 신앙의 현실적인 힘과 신앙의 근거가 되는 <초공본풀이>는 지속적인 성스러움을 확보하는 것이다.²⁶⁾

5. 맺음말

그리하여 굿이 끝나면 이들은 일상(日常)으로 회귀한다. 일상은 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멀다. 매일매일의 삶은 오히려 비속하기까지 하다. 먹고 사는 걸 마련하기 위해 매일을 버티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가. 깊은 바다 속을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어야 하고 발을 돌봐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길러 내야 한다. 때로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기르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들의 삶에 <초공본풀이>는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노가단풍 아기씨

26) 이상의 논의는 신화와 의례의 관계와 연관된다. 프로이트, 옌젠, 클러혼 등 신화가 의례화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헤리슨, 머레이, 프레이저 등 의례에서 신화가 파생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신화와 의례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다. 신화와 의례의 연행과 수용자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현장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大林太良 아옥인부, 권태효 역, 『신화학 입문』, 새문사, 1996. 144~152면.

가 겪었던 삶의 고난은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자신들의 것이기도 하다. 없는 살림에 힘겹게 아이를 길러내는 모습은 모든 어머니들이 같이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공본풀이>의 전반부가 왜 그렇게 비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제주 여성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기씨와 삼뽕두가 신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여성들의 가슴에는 아기씨나 삼뽕두가 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겨져 있다. 이들과처럼 초라하고 비속한 삶을 살았던 아기씨가 신이 된 것이다. 고단한 삶을 벗어나 다른 존재,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 더 높은 무엇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빛처럼 가슴에 남는다.

이런 빛을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그 일상은 더 이상 비속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게 된다. 방향 없는 삶이 아니게 된다. 무언가 나은 것, 더 높은 것을 향하는 삶이 된다. 일상의 비속함을 참고 견딜 뿐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면서 더 크고 넓은 자아가 된다. 스스로 성스러워진다.

이것은 한 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초공본풀이>는 반복된다. 일상의 비루함에 시달려 삶의 성스러움이 씻겨 내려갈 때면 다시 <초공본풀이>를 듣게 된다. 다시 신을 마음에 맞아 들인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겪으면서 자기 안에 신성을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초공본풀이>가 갖는 성스러움의 최종적 지향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수용론적 연구로서는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크다. 심방과 단골 집단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 제주도 곳 현장 자체를 자료로 하는 수용론적 연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연구의 앞길에 서는 서론 역할을 하는 정도이다.

참고문헌

- 김현선, 「제주도 ‘삼맹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생활문화연구』 제6호, 국립민속박물관, 2002. 111~132면.
- 김현선,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신화아카데미 편,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251~331면.
- 김현선, 「제주도 큰굿의 본풀이와 맞이의 상관성 연구」, 제주도 큰심방 이 중춘 추모 학술제와 삼시왕연맞이, 『학술대회 자료집』, 2012. 6. 1. 제주돌문화공원 내 오백장군갤러리, 1~104면.
-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403~448면.
- 멀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 『聖과 俗』, 학민사, 1983. 1~222면.
-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와 신굿」, 『비교문화연구』 5집,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87~108면.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383면.
- 문봉순, 「심방의 입무 의례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18면.
- 블라드미르 프로프,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새문사, 2009. 1-462면.
-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195~213면.
- 신연우, 「<초공본풀이> 노가단풍아기씨의 죽음과 재생의 농경신화적 이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255~283면.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연구」, 『한국무속학』 제19집, 한국무속학회, 2009. 7~33면.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짜임새와 미적 성취」, 『구비문학연구』 3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343~368면.
-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 고찰」, 『국어국문학』 110집, 국어국문학회,

1988. 359~370면.

윤교임, 「여성 영웅신화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106면.

이수자, 「한국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16집, 이화어문학회, 1998. 5~30면.

장주근, 「제주도 신방의 본풀이」,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고 190. 을유문화사, 1986년 5판, 142~144면.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용대 옮김,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2003. 1~918면.

제주시 향토민요 자료집, 『제주의 향토민요』, 제주도, 2000. 1~477면.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472면.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506면.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1~408면.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164면.

최시환,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 11집. 배달학회, 1986. 185~214면.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859면.

大林太良 아옥인부, 권태효 역, 『신화학 입문』, 새문사, 1996. 1~174면.

논문투고일: 2012.9.30. 심사완료일: 2012.11.23. 게재확정일: 2012.12.10.

Abstract

The Sanctity and the Vulgarness in the Jeju Shaman Epic <Chogong Bonpuri>

Shin, YeonWoo

<Chogong Bonpuri> is the most important epic that Jeju shamans sing in almost every shamanistic rituals, especially in KeunGut(The massive shaman rituals). However, when we hear the song, we can hardly believe it is the sacred narrative. So it is natural to ask where is 'the sanctity' in that long story-telling song.

We can subdivide the whole story into four phases.

1. the downfall of the Lady, the only daughter of a wealthy person.
2. ascend from the poverty-stricken life through her son's effort.
3. downfall again. she was killed in the end.
4. switching over to transcendental dimension. The lady and her sons left this harsh realities and became the gods in the heaven.

1-3 phases are about the every life of the vulgar world. This world has been a series of hardship and frustration. We can not understand the reason and/or settle them. From this point, the women of Jeju island regard life as a futile torment. The death of the lady was required to expose the absurdity of life in this world of mundanity.

The Lady could become a god for she has gone through all the process of downfall-ascend-downfall and death. The ordinary persons who go through the similar process see a paragon of their lives. And they expect the other life, a transcendental one. They realize the transcendental Lady look down upon them on the earth. They try to live with a image of the Lady and the vulgarity of their life could be replaced with something dignified. They make themselves sanctified. This is the very point of singing and listening <Chogong Bonpri>, the representative shaman song in Jeju Island.

Key words : Jeju Island, shaman epic, <Chogong Bonpri>, sanctity, vulgarness, transcendentalism

K C I

к с і